



그해 고양은 그날 우리는

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식 시민 참여자 인터뷰

지난 3월 26일 고양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식「그해 고양은」이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시민이 직접 만든 무대와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그 자리를 빛낸 시민 사회자와 가수 양희은과 듀엣 무대를 꾸민 학생을 만나보았다.

나의 고양은 '봄'이다

66

고양시는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곳이에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늘 설레는 공간이죠. 마치 기다리고 기다리던 따뜻한 봄날처럼요.

99

가수 양희은 듀엣
곽규람



멋진 가수가 되고픈 꿈을 지닌 고양예술고등학교 곽규람입니다. 고양시 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학교의 권유로 기념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무대는 2부에 진행된 양희은 님과의 듀엣 공연이었습니다. 곡명은 '엄마가 딸에게'라는 유명한 곡이었죠. 무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양아람누리에서 양희은 님과 만나 노래 지도와 격려를 받으며 함께 연습한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념식 날 많은 시민들이 일산호수공원을 찾아 오셨어요. 큰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영광이었는데요. 특히 양희은 님과 눈을 맞추며 부른 가사 하나하나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에 맴도는 기분입니다.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많은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칭찬해주셨습니다.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해주신 분도 있고요. 특별했던 이번 공연은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느껴지는 무대 위의 여운, 고양시민으로서 고양시의 큰 행사에 참여했다는 기쁨과 자부심은 가수를 향한 제 꿈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멋진 가수가 돼서 다시금 이런 큰 무대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땐 제가 가수를 꿈꾸는 다른 학생과 호흡을 맞추며 노래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날이 오길 기다리며 더 밝게 빛날 제 꿈과 고양시의 내일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